



# LG아트센터 2017년 기획공연 시즌 — CoMPAS17

#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17

## 2017년 상반기

**3.7** tue  
8pm

**이자벨 파우스트,  
알렉산더 멜니코프 &  
장-기엔 케라스**

Isabelle Faust,  
Alexander Melnikov &  
Jean-Guihen Queyras  
R 80,000 / S 60,000 / A 40,000

**3.8** wed  
8pm

**칙 코리아 일렉트릭 밴드**

The Chick Corea Elektric Band  
R 140,000 / S 110,000 /  
A 80,000 / B 50,000

**3.24** fri-27 mon

fri & mon 8pm, sat 7pm, sun 3pm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스위트 맘보>**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Sweet Mambo"  
VIP 12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3.31** fri-4.2 sun

fri 7pm, weekend 3pm

**이보 반 호프 연출, 토닐그룹  
암스테르담 <파운틴헤드>**

Toneelgroep Amsterdam  
"The Fountainhead"  
directed by Ivo van Hove  
R 80,000 / S 60,000 / A 40,000

**4.21** fri  
8pm

**피아니스트 가브리엘라 몬테로**

Pianist Gabriela Montero  
R 80,000 / S 60,000 / A 40,000

**4.27** thu-30 sun

weekdays 8pm, sat 7pm, sun 3pm

**아트서커스 <라 베리타>**

Compagnia Finzi Pasca  
"La Verità"  
VIP 100,000 / R 80,000 /  
S 60,000 / A 40,000

**5.26** fri-27 sat

fri 8pm, sat 5pm

**웨인 맥그리거 안무 <아토모스>**

Company Wayne McGregor  
"Atomos"  
R 80,000 / S 60,000 / A 40,000

**5.29** mon

8pm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협연**

Scottish Chamber Orchestra  
with Christian Tetzlaff  
VIP 150,000 / R 120,000 /  
S 80,000 / A 40,000

**5.31** wed

8pm

**탈리스 스콜라스**

The Tallis Scholars  
R 80,000 / S 60,000 / A 40,000

## 2017년 하반기

**10.18** wed-11.5 sun

**고선웅 연출 <라 빠르망>**

"L'Appartement"  
directed by KOH Sun Woong  
\*추후 티켓 오픈 예정입니다.

**11.9** thu-12 sun

weekdays 8pm, sat 7pm, sun 3pm

**스페인국립무용단 <카르멘>**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Carmen"  
VIP 12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11.16** thu-19 sun

weekdays 8pm, sat 3pm & 7pm, sun 3pm

**영국 극단 1927 <골렘>**

"Golem" created by 1927  
R 80,000 / S 60,000 / A 40,000

**11.21** tue

8pm

**크로노스 콰르텟 "검은 천사들"**

Kronos Quartet "Black Angels"  
R 80,000 / S 60,000 / A 40,000

**11.25** sat

7pm

**안토니오 산체스와 마이그레이션**

Antonio Sanchez and Migration  
R 80,000 / S 60,000 / A 40,000

+

2pm

**버드맨 드림 세션**

The Birdman Experience  
All Seats 30,000

LG아트센터는  
 비영리공익법인 LG연암문화재단이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연장이며,  
 LG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와  
 시도를 존중하는 LG아트센터는  
 2000년 개관 이래 우리의 공간이  
 창의력과 열정을 자랑하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곳이 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 관객들이 놓쳐서는 안 될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LG아트센터는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고,  
 언제나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LG Arts Center was founded by the  
 global conglomerate LG as a means  
 of giving back to society what they  
 have profited from the public.  
 LG Arts Center currently operates  
 under the guidance of LG Yonam  
 Foundation, a non-profit charity arm  
 of the LG group.  
 Since the opening in the year 2000,  
 LG Arts Center has been endorsing  
 diverse artistic values and expressions  
 of our time to the Korean public, and  
 has aspired to become the premier  
 performing arts venue for both our  
 valued audiences and artists.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both  
 the artists and the audiences the  
 artistic inspiration and an overall  
 amazing experience, and to win their  
 trusts and make LG Arts Center  
 their most preferred presenter of  
 performing arts.

LG아트센터 2017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17**

2017.  
 3.7—11.25



패키지 티켓 오픈

2017.1.10(화) 오전 9시부터

Ticket sales for packaged programs  
 will begin at 9am on Tue 10 Jan.

개별공연 티켓 오픈

2017.1.17(화) 오전 9시부터

Ticket sales for each program  
 will begin at 9am on Tue 17 Jan.

THEATRE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스위트 맘보〉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Sweet Mambo"  
3.24(Fri)-27(Mon)

웨이인 맥그리거 안무 〈아토모스〉

Company Wayne McGregor  
"Atomos"  
5.26(Fri)-27(Sat)

스페인국립무용단 〈카르멘〉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Carmen"  
11.9(Thu)-12(Sun)

이보 반 호프 연출,  
토널그룹 암스테르담 〈파운틴헤드〉  
Toneelgroep Amsterdam  
"The Fountainhead"  
directed by Ivo van Hove  
3.31(Fri)-4.2(Sun)

고선웅 연출 〈라 빠르망〉  
"L'Appartement"  
directed by KOH Sun Woong  
10.18(Wed)-11.5(Sun)

영국 극단 1927 〈골렘〉  
"Golem" created by 1927  
11.16(Thu)-19(Sun)

아트서커스 〈라 베리타〉  
Compagnia Finzi Pasca  
"La Verità"  
4.27(Thu)-30(Sun)

DANCE

ENTERTAINMENT

CLASSICAL MUSIC

이자벨 파우스트, 알렉산더 멜니코프  
& 장-기엔 케라스

Isabelle Faust, Alexander Melnikov  
& Jean-Guihen Queyras  
3.7(Tue)

피아니스트 가브리엘라 몬테로

Pianist Gabriela Montero  
4.21(Fri)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협연  
Scottish Chamber Orchestra  
with Christian Tetzlaff  
5.29(Mon)

탈리스 스콜라스

The Tallis Scholars  
5.31(Wed)

크로노스 콰르텟 "검은 천사들"

Kronos Quartet "Black Angels"  
11.21(Tue)

척 코리아 일렉트릭 밴드

The Chick Corea Elektric Band  
3.8(Wed)

안토니오 산체스와 마이그레이션

Antonio Sanchez and Migration  
+  
버드맨 드림 세션  
The Birdman Experience  
11.25(Sat)

JAZZ

02

+

03

LG아트센터 기획공연은 패키지가 진리!

## CoMPAS17 패키지

2017.1.10(화)~각 패키지별 예매 마감까지

국내 최초로 시작한 LG아트센터의 시즌 패키지!

패키지 구매의 기쁨은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커진다는 것!

민고 보는 LG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이

확실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 CoMPAS17 패키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뒷면을 참조해주세요.

4명 이상 뭉치면 1명은 무료, 뭉치면 싸다!

## 뭉싸 할인

2017.1.17(화)~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동일 공연의 동일 회차 R, S석 4매 이상 구매 시 25% 할인  
(공연별 회당 선착순 100매)

\* 해당공연: 〈파운틴헤드〉, 〈라 베리타〉, 〈아토모스〉,  
〈카르멘〉, 〈골렘〉

예술적 영감을 원하는 전문가를 위해

## 공연예술전문가 할인

2017.1.17(화)~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 공연별, 소속 장르별  
맞춤 할인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MY LG아트센터' > '공연예술전문가 등록' 메뉴 참고

※ 모든 할인은 중복 및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상시 할인은  
LG아트센터 2017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17'에만 해당합니다.  
단, "버드맨 드림 세션"은 조기예매 할인과 청년 할인만 적용되며, 기타  
할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빨리 잡은 좌석이 보기도 좋다!

## 조기예매 할인

2017.1.17(화)~2.17(금)

• 2월 17일(금)까지 개별 공연 구매 시 15% 조기예매 할인

젊음을 누려라!

## 청년 할인

2017.1.17(화)~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본인 1매 할인  
• A, B석 30% / VIP, R, S석 20% 할인  
• "버드맨 드림 세션" 20% 할인  
• 티켓 수령 시 '신분증' 현장 확인(미지참 시 현장 차액 지불)

신한카드가 선택한 특별한 문화 코드!

## 신한카드 GREAT 아트 컬렉션 할인

2017.1.17(화)~2.17(금)

신한카드의 특별하고 품격 있는 문화 공연 제안  
GREAT 아트 컬렉션!

• 조기예매 기간 동안 '신한카드 GREAT 아트 컬렉션' 공연을  
'신한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공연별 선착순 200매)

\* 해당공연: 척 코리아 일렉트릭 밴드, 〈스위트 맘보〉,  
〈파운틴헤드〉, 〈라 베리타〉, 〈라 빠르망〉, 〈카르멘〉,  
〈골렘〉, 안토니오 산체스와 마이그레이션

\* 〈라 빠르망〉은 추후 티켓 오픈 시 할인 적용됩니다.

기획공연 상시 할인은 신한카드 뿐

## 신한카드 10% 할인

2017.1.17(화)~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CoMPAS17 패키지

패키지 티켓 오픈  
2017.1.10 화요일  
오전 9시부터

가벼운 주머니를  
묵직한 감동으로 채워 줄  
LG아트센터  
CoMPAS17 패키지

## 구입 전에 알아둘 점!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 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각 패키지별 구매 가능 기간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하신 패키지의 첫 공연 시작일부터 취소 및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공연의 날짜 변경은 가능합니다.
- 각 공연의 티켓 상황에 따라 일부 패키지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를 구입하면 좋은 점!

- 패키지를 구매하신 관객께 '패키지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구매 패키지 첫 공연일 증정)
- '패키지 카드'를 제시하시면, LG아트센터 메인 로비 카페 10% 및 제휴 레스토랑 할인 가능합니다.
- 패키지로 구매하신 공연 중 2매까지 '동행인 할인'을 적용 받아 동반인 좌석을 구입할 수 있으며, 20% 할인이 제공됩니다.

## 문의 및 예매

- LG아트센터 홈페이지 [www.lgart.com](http://www.lgart.com) (PC 버전만 가능)
- 매표소 운영 시간: 평일 9am - 6pm (주말, 공휴일 휴무)
- Tel.** +82(2) 2005-0114
- E-mail.** [arts2005@lgart.com](mailto:arts2005@lgart.com)

04



05



크로노스 콰르텟 "검은 천사들"  
Kronos Quartet "Black Angels"  
11.21(Tue)

믿고 보는 LG아트센터에서 '궁극의' 문화생활을!  
'궁극의' 할인을 선사하는 바로 그 패키지

## 궁극의 패키지

예매 기간: 2017.1.10(화) 오전 9시 - 오후 6시(단, 9시간)

13편 전체 선택 시 - 50% 할인

- 2017년 기획공연 중 13편을 모두 구매할 경우 드리는 50% 파격 할인은 오직 9시간 동안만 진행됩니다.
- 동일 좌석등급으로 구매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단, 안토니오 산체스의 "버드맨 드림 세션"과 고선웅 연출 <라 빠르망>은 본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Tip** 2016년 출시된 '궁극의 패키지'로 '궁극의' 효율과 '궁극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놓쳐서 후회하셨던 관객분들께서는 1월 10일 9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VIP* + R	1,270,000	→	635,000
R	1,180,000	→	590,000
S	890,000	→	445,000
A	600,000	→	300,000

3.7(화)	파우스트, 멜니코프, 케라스 트리오
3.8(수)	척 코리아 일렉트릭 밴드
3.24(금)-27(월)	피나 바우쉬 <스위트 맘보>
3.31(금)-4.2(일)	이보 반 호프 <파운틴헤드>
4.21(금)	가브리엘라 몬테로
4.27(목)-30(일)	아트서커스 <라 베리타>
5.26(금)-27(토)	웨인 맥그리거 <아토모스>
5.29(월)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5.31(수)	탈리스 스콜라스
11.9(목)-12(일)	스페인국립무용단 <카르멘>
11.16(목)-19(일)	극단 1927 <골렘>
11.21(화)	크로노스 콰르텟 "검은 천사들"
11.25(토)	안토니오 산체스와 마이그레이션

\*VIP 선택 공연(4편) - 피나 바우쉬 <스위트 맘보>, 아트서커스 <라 베리타>,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스페인국립무용단 <카르멘>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스위트 맘보>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Sweet Mambo"  
3.24(Fri)-27(Mon)

내 공연은 내 맘대로 골라본다!

## 자유 패키지

- 2017년 모든 기획공연 대상 동일 좌석등급으로 구매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단, 안토니오 산체스의 “버드맨 드럼 세션”과 고선웅 연출 <라 빠르망>은 본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Tip**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취향에 따라 원하는 공연을 골라보고 싶은 관객에게 적극 추천!

### 10편 이상 선택 시 - 35% 할인

예매 기간: 2017.1.10(화) - 3.30(목)

### 7편 이상 선택 시 - 25% 할인

예매 기간: 2017.1.10(화) - 5.25(목)

### 5편 이상 선택 시 - 20% 할인

예매 기간: 2017.1.10(화) - 5.30(화)

\*VIP 선택 공연(4편) - 피나 바우쉬 <스위트 맘보>, 아트서커스 <라 베리타>,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스페인국립무용단 <카르멘>

연극과 무용, 어느 장르에 고정될 수 없는  
오픈된 취향을 저격한 패키지

## 더블 패키지

예매 기간: 2017.1.10(화) -3.23(목)

- 6편 모두 선택 시, 전 등급 25% 할인!
- 단, 고선웅 연출 <라 빠르망>은 추후 티켓 오픈 예정으로 본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24(금)-27(월)	피나 바우쉬 <스위트 맘보>
3.31(금)-4.2(일)	이보 반 호프 <파운틴헤드>
4.27(목)-30(일)	아트서커스 <라 베리타>
5.26(금)-27(토)	웨인 맥그리거 <아토모스>
11.9(목)-12(일)	스페인국립무용단 <카르멘>
11.16(목)-19(일)	극단 1927 <골렘>

VIP* + R	580,000	→	435,000
R	520,000	→	390,000
S	400,000	→	300,000
A	280,000	→	210,000

\*VIP 선택 공연(3편) - 피나 바우쉬 <스위트 맘보>, 아트서커스 <라 베리타>, 스페인국립무용단 <카르멘>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과 귀를 가진 관객들을 위한 패키지

## 클래식 패키지

예매 기간: 2017.1.10(화) -3.6(월)

- 5편 모두 선택 시, 전 등급 25% 할인!

3.7(화)	파우스트, 멜니코프, 케라스 트리오
4.21(금)	가브리엘라 몬테로
5.29(월)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협연)
5.31(수)	탈리스 스콜라스
11.21(화)	크로노스 콰르텟 “검은 천사들”

VIP* + R	470,000	→	352,500
R	440,000	→	330,000
S	320,000	→	240,000
A	200,000	→	150,000

\*VIP 선택 공연(1편) -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오랜만에 돌아왔다! 재즈 패키지

## 재즈 패키지

예매 기간: 2017.1.10(화) -3.7(화)

- 3편 모두 선택 시, 전 등급 15% 할인!
- “버드맨 드럼 세션”은 재즈 패키지에만 포함 가능합니다.

3.8(수)	척 코리아 일렉트릭 밴드
11.25(토)	안토니오 산체스와 마이그레이션 “버드맨 드럼 세션”

R	250,000	→	212,500
S	200,000	→	170,000
A	150,000	→	127,500

06

+

07



이보 반 호프 연출, 토날그룹 암스테르담 <파운틴헤드>  
Toneelgroep Amsterdam  
“The Fountainhead” directed by Ivo van Hove  
3.31(Fri)-4.2(Sun)



안토니오 산체스와 마이그레이션  
Antonio Sanchez and Migration  
11.25(Sat)



© Molina Visuals

## 이자벨 파우스트, 알렉산더 멜니코프 & 장-기엔 케라스

## Isabelle Faust, Alexander Melnikov & Jean-Guihen Queyras

A trio of the world's most acclaimed soloists - Isabelle Faust, Alexander Melnikov and Jean-Guihen Queyras, are scheduled to meet the Korean audience for the first time. The three have long been chamber music partners and are known to present performances of exceptional caliber. At LG Arts Center, they will be playing all three of Schumann's piano trios. Their performance will offer our audience a rare opportunity to capture the sheer essence of Schumann's chamber music virtuosity that is presented by artists who have received rave reviews by critics for their two-year Schumann Project during which they released three albums; each coupling a concerto with a trio.

03.07  
tue

8pm R 80,000  
S 60,000  
A 40,000

### Program

슈만 피아노 트리오 1-3번 전곡  
Schumann Piano Trio No.1 in D minor, Op.63  
Schumann Piano Trio No.2 in F major, Op.80  
Schumann Piano Trio No.3 in G minor, Op.110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2년 내한 당시 참신한 감각과 균형감을 고루 갖춘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로 파트너십의 이상향을 보여주었던 이사벨 파우스트(Isabelle Faust, 바이올린)와 알렉산더 멜니코프(Alexander Melnikov, 피아노), 그리고 2010, 2013년 두 차례의 LG아트센터 공연을 통해 바흐부터 쿠르탁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던 장-기엔 케라스(Jean-Guihen Queyras, 첼로). 이 세 연주자가 트리오로는 처음으로 국내 무대에 함께 선다.

이미 베토벤, 드보르작 등 완성도 높은 트리오 음반을 선보이며 솔로를 넘어 실내악에서도 연주력을 입증한 바 있는 이들은 최근 2년에 걸친 슈만 녹음 프로젝트(아르모니아 문디)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슈만의 협주곡과 피아노 트리오를 한 곡씩 커풀링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솔리스트로서의 탄탄한 테크닉과 실내악 연주자로서 무리익은 호흡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프랑스 뮌치크 초이스,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독일 음반비평가협회상 등을 휩쓸면서 평단과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세 정상급 연주자의 조합만으로도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이들의 첫 트리오 내한 무대에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은 슈만 피아노 트리오 전곡을 직접 감상할 수 있다. 아내 클라라를 향한 슈만의 사랑이 돋보이는 1번부터, "가장 어두운 심연까지 독창적이고 철두철미한 정열로 가득 차있다"며 클라라 또한 매료되었던 3번까지 모두 연주될 이번 공연은 세 명의 긴밀한 음악적 관계만큼이나 한층 더 깊이 있는 감동을 선사할 '슈만'이기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대단한 추진력과 열정을 가지고 악기 간 울림에  
예리하게 반응하며 피아노 트리오의 정점을 보여준  
세 연주자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Schumann's piano trio is played with drive,  
devotion and acute attention to blended  
sonority. Hats off to all concerned."**

- The Strad

# 칙 코리아 일렉트릭 밴드

## The Chick Corea Elektric Band

The Chick Corea Elektric Band led by Chick Corea visits Korea for the first time. Chick Corea, a 22-time Grammy-winning maestro, is recognized as one of the greatest jazz pianists alive, along with Keith Jarrett and Herbie Hancock. Chick Corea made his debut as the pianist for the Miles Davis Band in the '60s and founded the band Return to Forever in the '70s and began releasing numerous masterpieces including "Spain". He soon became the forerunner of the jazz fusion genre. In 1986, he founded The Chick Corea Elektric Band together with John Patitucci(Bass), Frank Gambale(Guitar), Dave Weckl(Drums), and Eric Marienthal(Saxophone), introducing a progressive musical domain by integrating rock, electric, and punk. All founding members will perform this time, presenting a rare opportunity not to be missed by Korean jazz lovers.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짜릿한 연주!

03.08  
wed

8pm R 140,000  
S 110,000  
A 80,000  
B 50,000

지난 반 세기 동안 도저히 한 사람이 걸어온 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쳐며 재즈의 역사를 온몸으로 써 온 재즈계의 살아있는 전설, 칩 코리아가 '일렉트릭 밴드(Elektric Band)'와 함께 한국을 찾는다.

칩 코리아는 1960년대 마일즈 데이비스 밴드의 피아니스트로서 <In a Silent Way>, <Bitches Brew>와 같은 명반에 참여했으며 70년대에는 퓨전 재즈 그룹 '리턴 투 포에버'를 통해 히트작 <Spain> 등을 발표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다.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렉트릭, 펑크, 록 음악에 심취한 그는 일렉트릭 밴드를 결성하여 총 5장의 앨범을 발표하는 등 굵직한 행보를 보여왔다. 이후 게리 버튼, 허비 행콕, 존 맥러플린 등 세계 최정상급의 재즈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음반을 발표하는 한편, 솔로 피아니스트로서 지속적인 음반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그래미상 63회 노미네이션, 22회 수상이라는 거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6년 75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의 블루 노트 재즈 클럽에서 1987년 <Light Years> 앨범부터 함께 했던 일렉트릭 밴드의 원년 멤버를 불러모아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궁극의 연주를 펼쳐 보였다. 오랫동안 다시 한번 뭉쳐 공연을 하고 싶었던 멤버들은 이 공연을 계기로 세계 투어를 시작했다.

이번 공연에는 이 시대 최고의 베이시스트 존 페티투치, 스위프 픽킹(Sweep picking) 기법의 창시자 기타리스트 프랭크 갬베일, 무시무시한 드럼의 전설로 통하는 데이브 웨클, 정열적인 색소포니스트 에릭 마리엔탈까지 오리지널 멤버 전원이 참여한다. 5명의 멤버들이 뿜어내는 강렬한 에너지 때문에 그들의 연주는 "로켓이 발사하는 느낌" 혹은 "화물열차가 달리는 듯한 연주"에 비유되곤 한다. 진정한 재즈 고수들의 음악적 열정이 폭발하는 일렉트릭 밴드의 공연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자!

### Line Up

칙 코리아(Chick Corea, Piano & Keyboards)  
데이브 웨클(Dave Weckl, Drums)  
존 페티투치(John Patitucci, Bass)  
에릭 마리엔탈(Eric Marienthal, Saxophone)  
프랭크 갬베일(Frank Gambale, Guitar)



“일렉트릭 악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험한  
첫 번째 연주자 중 하나  
“One of the first players to  
fully exploit the potential of  
electric instruments”  
- All About Jazz

“존경 받아 마땅한  
진정한 마에스트로”  
“A venerated maestro”  
- BBC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스위트 맘보〉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Sweet Mambo"  
A piece by Pina Bausch

03.24—03.27  
fri mon

fri & mon 8pm  
sat 7pm, sun 3pm

VIP 12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공연 시간  
2시간 10분, 휴식 1회 포함  
Duration  
2hrs 10mins  
(incl. an interval)

눈빛, 목소리, 몸짓 속에 가득 담긴  
피나 바우쉬의 열정  
그리고 미학을 느낀다

21세기 최고의 예술가 피나 바우쉬(Pina Bausch). 무용과 연극을 넘나드는 혁신적인 스타일로 인간 본연의 감정과 욕망들을 깊은 울림으로 표현해냈던 그녀를 우리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 관객들을 찾아오는 작품 〈스위트 맘보(Sweet Mambo)〉는 피나 바우쉬가 서거하기 1년 전인 2008년 5월 부퍼탈에서 초연된 그녀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

〈스위트 맘보〉는 피나 바우쉬가 온전히 자신의 무용단을 위해 만든 작품으로, 그녀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무용수들의 개성이 잘 녹아있으며, 각각에 대한 그녀의 애정도 진하게 느낄 수 있다. 그만큼 무용단에게 있어서도 더욱 특별한 이 작품은 행복, 슬픔, 고통과 같은 인간의 온갖 다양한 감정들, 또한 다투고, 유혹하고, 흔들리고, 떠나가는 남녀간의 관계를 피나 바우쉬 특유의 스타일로 펼쳐 놓으며 그녀가 지닌 예술성의 진수를 보여준다.

무대 위로 드리워져 훑날리는 새하얀 커튼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솔로와 앙상블의 다양한 움직임과 유머러스하고 낙관적인 장면들은 아름답고도 대담하며 마치 현실과 초현실을 오가는 듯 변화무쌍한 이미지의 콜라주를 빚어낼 것이다. 피나 바우쉬를 추억할 수 있는 작품을 아직도 만날 수 있다는 건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에게 있어 대단한 행운인지도 모른다.

“피나 바우쉬를 향한 무용수들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러브 레터”

“An exquisite love letter to Pina Bausch”

- The Guardian ★★★★★

“Sweet Mambo” is one of the final works of Pina Bausch that premiered one year before her death in Wuppertal in May of 2008. Through “Sweet Mambo” the audience can visibly notice that the piece incorporates various personalities of the dancers and the deep affection Pina Bausch felt towards them. Diverse human emotions such as happiness, sorrow, and misery as well as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that is portrayed as fighting, seducing, swaying, and abandoning each other are explored and depicted through the inimitable style of the great Pina Bausch. Various dance movements of solos and ensemble as well as the humorous and life-affirming scenes reveal a beautiful and bold collage of ever-changing images that oscillate between the real and the surreal.

© Ursula Kaufmann



# 이보 반 호프 연출, 토닐그룹 암스테르담 〈파운틴헤드〉

**Toneelgroep  
Amsterdam**  
"The Fountainhead"  
directed by  
Ivo van Hove

The Toneelgroep Amsterdam's artistic director Ivo van Hove drew fresh attention from the theater world by winning both the Olivier Award and the Tony Award by producing "A View from the Bridge". He visits the LG Arts Center for the second time with "The Fountainhead". Based on the novel of the same title written by an American writer Ayn Rand, "The Fountainhead" portrays the stormy lives of its main characters: Howard Roark, a genius architect who lives an independent life pertaining to his strong sense of vocation and natural talent, Peter Keating, an architect who is fixated on reputation and commercial success, and Dominique Francon, a strong and beautiful women who refuses to compromise with fame. The work raises heated issues, such as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and the essence and authenticity of creation.

그의 공연을 보지 않고,  
현대 연극을 논하지 마라!

**03.31 — 04.02**  
fri sun

fri 7pm  
weekend 3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 시간  
4시간, 휴식 1회 포함  
Duration  
4hrs (incl. an interval)

관람추천: 17세 이상  
This production is suitable for  
17+ years old.



세계 연극계가 가장 주목하는 연출가, 토닐그룹 암스테르담의 이보 반 호프(Ivo van Hove)가 개인의 자유 의지와 창작에 대한 뜨거운 물음을 담은 연극 〈파운틴헤드(The Fountainhead)〉로 2012년 <오프닝 나이트(Opening Night)〉에 이어 두 번째로 LG아트센터 무대에 선다. 〈파운틴헤드〉는 구 소련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한 작가 에인 랜드(Ayn Rand)가 쓴 동명의 밀리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무려 700페이지에 이르는 원작 소설을 얇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어버린 이보 반 호프는 작품이 얘기하는 창작이 지닌 본질과 진정성,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뿐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에 매료돼 이를 연극화하기로 결심했다. 오로지 소명의식을 따라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가는 천재 건축가 하워드 로크의 폭풍 같은 삶을 그린 이 작품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상업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평판에만 매달리는 건축가 피터 키팅, 과거의 건축물들을 무비판적으로 베끼며 넘치는 명성을 쌓은 가이 프랑곤 그리고 이타주의의 가면을 쓰고 대중의 의견을 조종하는 지식인 엘스웬스 투히 등 인상적인 캐릭터들을 등장시킨다. 이들에게 둘러싸여 고독하고 모험적인 투쟁을 이어가는 하워드 로크는 유일하게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와 이상을 같이하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 도미니크 프랑곤과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눈다. 2012년 영국의 올드 빅 씨어터와 함께 만든 <다리에서 바라본 풍경>으로 영국 올리비에상(2015)과 미국 토니상(2016)에서 '작품상'과 '연출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이보 반 호프. 그가 선보이는 작품 〈파운틴헤드〉는 매력적이면서도 강렬하게 뇌리에 파고들어 과연 내 삶을 이끄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되묻게 만들 것이다.

**“이보 반 호프가 무대 위에 철학적 폭풍을 불러 일으켰다. 각 장면과 대사가 완벽하게 조화된 기막힌 작품.”**

**“Ivo van Hove puts on stage the philosophical storm ..... Electrifying theatre in which word and spectacle find a perfect, symbiotic balance.”**

- The Guardian ★★★★★

네덜란드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Dutch with Korean subtitles.



“가브리엘라 몬테로의 즉흥 연주는 놀랍도록 경이롭다. 그녀의 연주는 진정한 예술이며, 베네수엘라가 빚어낸 하나의 조각품 같은 이 연주자는 즉흥 예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Montero has a phenomenal gift as an improviser... classical improvisation was a serious art: this statuesque Venezuelan proves the art is not lost.”

- BBC Music Magazine

“즉흥이야말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럽게 본능적인 방식이다. 무대 위 나는 완전히 독특한 방식으로 관객들과 연결되며, 그들 역시 나와 하나가 된다.”

- 가브리엘라 몬테로

© Shelley Mosman

## 피아니스트 가브리엘라 몬테로

### Pianist Gabriela Montero

Pianist Gabriela Montero, celebrated as one of Venezuela's top classical music stars together with Gustavo Dudamel, conductor of the El Sistema orchestra, will visit Korea for the first time. Montero garnered her international fame not only through her authentic classical repertoire including Bach but also through her creative and agile improvisations, a rare talent found among classical music artists. At this recital, she will present her solid technical skills by playing Liszt and Brahms, as well as her trademark improvisations based upon requests from the audience.

04.21  
fri

8pm  
R 80,000  
S 60,000  
A 40,000

엘 시스테마의 구스타보 두다멜과 함께 베네수엘라가 자랑하는 클래식 스타인 피아니스트 가브리엘라 몬테로(Gabriela Montero)가 드디어 처음으로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몬테로는 생후 18개월에 귀에 익은 멜로디를 토이 피아노 건반으로 짚어냈으며, 8세 때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의 전신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으로 협연 데뷔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천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일찍부터 그녀의 천부적인 재능과 즉흥력을 알아본 거장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공개 즉흥 연주를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자 몬테로는 공연장에서 즉석으로 관객들의 신청곡을 받아 즉흥 연주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여타 피아니스트와 차별화시켜 갔다. 또한, 즉흥곡들이 담긴 음반 <Bach and Beyond>, <Baroque> 등으로 독일 '에코 클래식 상' 등 권위 있는 음반상도 골고루 수상하면서 진지한 클래식 레퍼토리는 물론 창의적인 즉흥 연주 모두 능수능란하게 소화해내는 보기 드문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남미 대표로 참가해 요요 마, 이작 펄만 등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몬테로는 최근에는 즉흥 연주를 넘어 직접 작곡한 교향시 "Ex Patria"와 라흐마니노프 2번 협주곡이 수록된 신보(Orchid)로 2015 라틴 그래미상 '베스트 클래식 앨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 몬테로는 자신의 장기인 즉흥 연주와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한 자리에서 보여준다. 1부에서는 탄탄한 기교를 바탕으로 한 브람스와 리스트가 연주되며, 2부에서는 트레이드 마크인 관객들과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즉흥 연주가 펼쳐진다. 때로는 서정적이면서 섬세하고, 때로는 리드미컬하면서 파워풀한 라틴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몬테로의 첫 내한은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색다른 차원의 클래식 공연을 선사할 것이다.

#### Program

1부 - 브람스 인터메조 Op.117, 리스트 b단조 소나타  
Brahms Intermezzo Op.117, Liszt Sonata in b minor  
2부 - 즉흥 연주  
Montero Improvisations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트서커스 〈라 베리타〉

## Compagnia Finzi Pasca "La Verità"

written and directed by  
**Daniele Finzi Pasca**

An incredibly beautiful circus is coming to Korea. "La Verità(The Truth)" is a work created by Daniele Finzi Pasca, who directed "Coreto" and "Luzia" for Cirque du Soleil and "Nebbia" and "Rain" for Cirque Éloize. As a world famous director, writer, and mimist, he not only directed circus productions but also operas and the closing ceremony of the 2006 Torino Winter Olympic Games and the 2014 Sochi Winter Olympic Games. Through his artistic endeavors that transcend boundaries, Daniele Finzi Pasca has touched the hearts of audiences around the world. "La Verità" is a work inspired by the Spanish surrealist painter Salvador Dali and takes place in an auction house that has placed on sale Dali's masterpiece "Tristan Fou". Integrating beautiful, picturesque visuals and highly challenging acrobatics, the work is known to lead audiences to a world of dreamlike fantasy.

04.27 — 04.30  
thu sun

weekdays 8pm  
sat 7pm, sun 3pm

VIP 100,000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 시간  
2시간, 휴식 1회 포함

Duration  
2hrs (incl. an interval)

영어로 공연되는 장면이 일부 있으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English with  
Korean subtitles.

"초현실주의에서 시작해  
승고한 경지에 도달하는 작품"

"Performance art goes from  
the surreal to the sublime"

- The Gazette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서커스가 온다

공연이 시작하면 어둠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등장한다. 그는 이 곳에서 어느 화가의 그림을 경매에 붙일 것이라고 말한다. 잠시 후 그림이 그려진 거대한 커튼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바로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명작, <광란의 트리스탄(Tristan Fou)>이다. 이 압도적인 이미지를 배경으로 본격적인 서커스가 시작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색깔과 다채로운 모습의 출연자들이 아크로바틱과 연극, 춤, 음악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마치 달리의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환상적인 비주얼의 이 공연은 세계적인 연출가 다니엘 핀지 파스카(Daniel Finzi Pasca)의 <라 베리타(La Verità, 진실)>다.

"〈라 베리타〉는 단순한 쇼나  
서커스, 연극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다."

"La Verità is not just a show,  
or the circus, or theatre,  
but everything at once:  
an acrobatic universe of  
fascination, incorporating  
different themes."

- L'eco di Bergamo

다니엘 핀지 파스카는 스위스 출신의 작가, 연출가 겸 마임이스트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두 서커스 단체인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와 '서크 엘루아즈(Cirque Éloize)'에서 모두 연출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서커스 외에도 영국국립오페라단(ENO), 러시아 마린스키 오페라와 협업하는 등 경계를 뛰어넘는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폐막식을 총 연출하며 전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핀지 파스카의 최신작 <라 베리타〉는 2013년 몬트리올에서 초연한 이래 미국,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스위스, 콜롬비아, 브라질,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전세계에서 200회 이상 공연하며 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대형 히트작이다. 무대 위 한 편의 시처럼 펼쳐질 이 작품은 우리에게 세계적 수준의 아트 서커스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18  
+  
19

ENTERTAINMENT

# 웨이인 맥그리거 안무 〈아토모스〉

## Company Wayne McGregor "Atomos"

Atomizing bodies, movement, film, sound and light into miniature shards of intense sensation, "Atomos" is a work created by the multi-award-winning British choreographer, Wayne McGregor. Internationally renowned for his unique, tenacious questioning across the interface of art and science and through the body and mind, McGregor has remained at the forefront of contemporary arts for the past 24 years. Imagining the indivisible order created through uncuttable structures and interwoven with an architectural manipulation of bodies, the choreography of "Atomos" grows from the form of the atom. Aided by computer programs, innovative lighting designs, 3D projections and ultra-modern sounds, McGregor creates images of superb beauty and finesse. A vision of future worlds is presented through this unique dance piece.

### 진보하는 21세기의 현대무용을 만나다!

05.26 — 05.27  
fri sat

fri 8pm  
sat 5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 시간  
70분, 휴식 없음

Duration  
70mins without an interval

일부 장면은 3D 안경을 착용하고  
감상하게 됩니다.

몸을 통해 사유하며 과학과 첨단 테크놀로지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끝없이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예술세계를 개척해온 영국의 대표 안무가 웨이인 맥그리거(Wayne McGregor)가 1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그는 1992년 창단한 랜덤 댄스 컴퍼니를 자신의 이름을 딴 명칭으로 바꿔 이끌어 가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영국 로열 발레단의 상주안무가로 활동하면서 파리 오페라 발레, 볼쇼이 발레, 뉴욕 시티 발레, NDT 등 세계 최고의 발레단과 무용단을 위해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또한, 영화 〈해리 포터와 불의 잔〉, 〈레전드 오브 타잔〉, 〈신비한 동물사전〉의 움직임을 연출하고, 세계적인 록 밴드 '라디오헤드'와 일렉트로닉 뮤지션 '케미컬 브라더스'의 뮤직 비디오투를 안무하기도 하는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자신만의 혁신적인 창조력을 발휘해왔다. 특히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웨이인 맥그리거 스튜디오'에서 무용뿐 아니라 음악, 영화, 비주얼 아트, 테크놀로지 등에 걸쳐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총체적인 작업을 진행하며 영국 현대 예술계의 크리에이티브 엔진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한국에서 선보이는 〈아토모스(Atomos)〉(2013)는 그의 예술성이 가장 잘 담긴 대표작 중 하나로 3D 안경을 쓰고 감상하는 작품이다. 이를 위해 엠비언트 뮤직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A Winged Victory for the Sullen'이 음악을 맡고, 패션과 기술이 결합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선도하는 영국의 'Studio XO'가 각 무용수들의 생체정보를 반영하여 의상을 디자인했다. 마치 원자(atom)처럼 섬세하고 유려한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어우러진 영상과 조명은 무대 위에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빚어내며 관객들에게 공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무용과 음악, 과학과 철학을 최첨단의 감각으로 융합시켜 이뤄낸 21세기적인 예술을 바로 〈아토모스〉를 통해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정의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그는 바로 웨이인 맥그리거다."**

**"If any artist has defined the decade,  
it's Wayne McGregor."**

- The Times



© Ravi Deepres



© Marco Borggreve

##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협연

### Scottish Chamber Orchestra with Christian Tetzlaff

A world-class chamber ensemble boasting a history and tradition of 43 years, the Scottish Chamber Orchestra returns to Korea accompanied with Robin Ticciati, a rising star conductor in the UK who is endorsed by Sir Simon Rattle and praised as the second Daniel Harding. Their first visit to Korea in 2014 captivated the Korean audience with a performance filled with vitality and elegance. This time, they will perform Mozart's symphony "Jupiter" and Mendelssohn's violin concerto in collaboration with Christian Tetzlaff, a renowned violinist also very popular in Korea for his brilliant techniques and insightful interpretations.

05.29  
mon

8pm	VIP 150,000
	R 120,000
	S 80,000
	A 40,000

**Program**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모차르트 교향곡 "주피터" 등  
Mendelssohn Violin Concerto in E minor  
Mozart Symphony No.41 "Jupiter", etc.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실내악단 스코틀랜드 체임버 오케스트라(Scottish Chamber Orchestra, 이하 SCO)가 영국 지휘계의 떠오르는 신성, 로빈 티치아티(Robin Ticciati)와 함께 3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앙상블 중 하나"(BBC 뮤직매거진)로 손꼽히는 SCO는 지난 40여 년간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누비며 활발하게 활동해왔고, 거장 지휘자 찰스 매킨러스 경과 녹음해 필칭 음반으로 남은 <모차르트 교향곡집>(Linn)으로 수많은 상을 휩쓸기도 했다. 2009년, 스물여섯의 나이로 SCO의 수장을 맡아 8년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티치아티는 SCO 뿐 아니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라 스칼라 극장 역대 최연소 지휘 데뷔 기록을 갱신한 천재 지휘자다. 콜린 데이비스 경, 사이먼 래틀 경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활발히 음악적 커리어를 쌓고 있는 그는 현재 80년 전통의 권위 있는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등 영국을 대표하는 오페라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패기 넘치는 젊은 마에스트로 티치아티와 더욱 세련되고 견고한 앙상블로 거듭나고 있는 SCO는 이번 내한에서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Christian Tetzlaff)와 함께 더욱 풍성한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SCO는 솔로, 실내악, 협연 등 국내 무대에서 화려한 기교와 통찰력 있는 연주로 이미 큰 찬사를 받고 있는 테츨라프와 멘델스존 협주곡을 연주하며, 모차르트 교향곡 "주피터"로 성대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강렬한 에너지와 신선한 해석으로 익숙한 레퍼토리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솔리스트의 특별한 만남을 기대해 보자.

**"이제 갓 서른 줄에 접어든 젊은 지휘자 로빈 티치아티가 세계 클래식 음악계를 뒤흔들고 있다."**

**"At only 32, the music director is shaking up the world of classical music."**

- Evening Standard

# 탈리스 스콜라스

## The Tallis Scholars

A vocal ensemble that is globally acclaimed for their unparalleled interpretations of the Renaissance choral music, the Tallis Scholars returns to Seoul after 13 years since their last visit in 2004. The Tallis Scholars was founded in 1973 by Peter Philips with the aim of bringing back sacred music from the Renaissance period on stage which was rarely heard at the time. Ever since its foundation, the choir has been praised as "the UK's greatest cultural export" (BBC Radio) who are dedicated to not only British but also Western Renaissance music, and spreading its beauty through purely refined voices. For their long-awaited performance in June, they will present jewels of religious music from the Renaissance period, including music by Tallis, Byrd, Monteverdi, and Palestrina.

05.31  
wed

8pm R 80,000  
S 60,000  
A 40,000

### Program

탈리스, 버드, 로터, 몬테베르디, 팔레스트리나의 종교음악  
Sacred music by Tallis, Byrd, Lotti, Monteverdi & Palestrina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성악곡 연주의 독보적인 존재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10인조 아 카펠라 앙상블인 영국의 '탈리스 스콜라스(The Tallis Scholars)'가 13년만에 서울을 찾는다. 창단 이래 현재까지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피터 필립스(Peter Philips)가 1973년 당시엔 흔히 듣기 어려웠던 르네상스 종교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합창음악 장학생들(choral scholars)'을 불러모아 창단한 탈리스 스콜라스는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선율 라인을 찬란히 드러내는 명쾌한 해석과 정교한 테크닉을 바탕으로 한 청명하고 순수한 사운드로 오랜 세월 드높은 찬사를 받아왔다. 탈리스 스콜라스는 오로지 자신들의 연주만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기멜(Gimell) 레코딩 레이블을 통해 중요한 르네상스 레퍼토리를 발굴하여 발표해왔다. 이들은 1987년 고음악으로는 처음으로 그라모폰상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음반상'을 수상한 이후 수 차례의 '최우수 고음악 음반상'을 수상하였으며, 프랑스

'올해의 황금 디아파종상', 미뎀 클래식 어워드 등 주요 음반상을 거머쥐었고 2013년에는 세계음악계에 끼친 커다란 공헌을 인정받아 그라모폰지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BBC 라디오가 "영국의 가장 위대한 문화 수출품 중의 하나"로 칭송한 탈리스 스콜라스는 실로 오랜만에 가지는 서울 무대에서 영국과 이탈리아의 핵심적인 르네상스 작곡가의 음악을 들려준다. 단체명의 기원이 되는 작곡가이며, 16세기 당대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시도하면서 영국의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토마스 탈리스(Thomas Tallis, 1505-1585) 및 그의 수제자였던 윌리엄 버드(William Byrd, 1543-1623)의 미사곡과 모테트, 그리고 몬테베르디와 팔레스트리나의 보석 같은 종교음악까지 이번 공연은 4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탈리스 스콜라스만의 순도 높은 천상의 화음을 감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르네상스 음악 애호가들의 슈퍼스타"

"Anyone familiar with Renaissance music knows that this group has attained superstardom."

- The Boston Globe





## 고선웅 연출 〈라 빠르망〉

“L'Appartement”  
directed by  
KOH Sun Woong

Will there ever be a work that portrays the ironies of love more charmingly than this? “L'Appartement”, a film written and directed by Gilles Mimouni in 1996 will be recreated into a play of the same title. Known to have sprouted a love-relationship in real life between the two main actors, Vincent Cassel and Monica Bellucci, this famous film will be staged for the first time by the Korean star director KOH Sun Woong. KOH is without doubt Korea's most sought-after director today, who has firmly established his own style and gained a solid fan base through works that leap over the realms of theater and reach genres of changgeuk, musical, and opera. At the peak of KOH's fame, one cannot help but look forward to seeing how he will stage the ironies of a troubled relationship arising among six men and women.

10.18 — 11.05  
wed sun

본 공연의 티켓 오픈 일정 및  
상세 정보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공동제작: LG아트센터, 극공작소 마방진  
Produced by LG Arts Center, Playfactory Mabangzen

약혼녀를 위한 반지를 사던 날 옛 연인 리사의 흔적을 쫓게 된 막스. 그가 그녀를 찾아 헤메는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얽혀 있던 모든 관계들이 꼬리를 물며 폭로된다. 사랑의 아이러니가 이토록 매력적으로 짜인 작품이 있을까. 프랑스 영화감독 질 미무니(Gilles Mimouni, 1956-)가 직접 쓰고 감독한 1996년 영화 <라 빠르망(L'Appartement, 아파트먼트)>은 2004년 미국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Wicker Park)>로 리메이크될 정도로 탄탄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구성의 영화로 여전히 많은 영화 팬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영화 배우 뱃상 카셀과 모니카 벨루치가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도 유명한 이 영화는 파리에 사는 여섯 남녀의 아름답지만은 않은 솔직한 사랑의 단면들을 포착한다. <라 빠르망>을 무대 위로 올리고 싶어 직접 감독을 수소문해 만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연출가 고선웅은 상투적이지 않고, 미스터리하게 풀어낸 이 사랑 이야기에 단숨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그런 애정과 열망이 담겨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LG아트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무대화된다. 작가이자 연출가로, 전방위에서 활약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 연출가 고선웅.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홍도>, <푸르른날에>, <칼로막베스> 등 연극뿐 아니라 뮤지컬, 창극, 오페라 장르에서도 성공적인 변신을 꾀하며 영역 없는 활동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가 이번엔 영화를 연극으로 옮겨놓는다고 하니, <라 빠르망>에 숨은 미스터리하고 아이러니한 사랑이 어떻게 무대화될 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 스페인국립무용단 〈카르멘〉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Spain**  
**Artistic Director:**  
**José Carlos Martínez**  
**"Carmen" by Johan Inger**

**11.09 — 11.12**  
 thu sun

weekdays 8pm  
 sat 7pm, sun 3pm

VIP 12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공연 시간  
 1시간 50분, 휴식 포함  
**Duration**  
 1hr 50mins (incl. an interval)

관람추천: 14세 이상  
 This production is suitable for 14+ years old.

## 스페인의 열정과 복구의 모던함이 만난 카르멘의 이유 있는 변신

비제(Bizet)의 명작 오페라 〈카르멘(Carmen)〉의 팜므 파탈 집시 여인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스페인국립무용단(Compañía Nacional de Danza, CND)과 스웨덴의 안무가 요한 잉거(Johan Inger)에 의해 완벽하게 변신했다. 욕망과 사랑, 자유의 상징과도 같은 카르멘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옷으로 바뀌어 입고 강렬한 유혹의 춤을 선보인다.

요한 잉거는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NDT)에서 무용수로 활약하던 중 이리 킬리안(Jiri Kylian)에게 발탁되어 안무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 NDT I과 II의 안무가와 스웨덴 쿨베리 발레단의 예술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잉거는 스페인 관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카르멘〉을 새로운 버전으로 탄생시키기 위해 어린아이를 목격자로 등장시킨다. 그리고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폭력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사람들을 파멸시키는지를 더욱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비극적 상황에 깊이를 더한다. 스웨덴 안무가와 스페인 무용단의 만남은 절묘했다. 잉거가 가진 스웨덴의 모던하고 세련된 감성은 스페인의 뜨거운 열정을 더해 〈카르멘〉을 관능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작품으로 재탄생시켰고, 이 작품으로 잉거는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에서 '최우수 안무상'을 수상하였다. 모던하고 강렬하게 편곡된 음악과 9개의 삼각 프리즘이 구현하는 미니멀한 무대, 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춤, 본질에 충실하게 재해석된 캐릭터 등 모든 것이 어우러진 〈카르멘〉. 올 가을 빨간 드레스의 그녀가 건네는 매혹의 손길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이다.

Carmen, an iconic gypsy woman symbolizing lust, love, and freedom, is completely recreated as a contemporary and sensuous character by Swedish choreographer Johan Inger and the Spanish National Dance Company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Johan Inger won the Best Choreographer award at the "Benois de la Danse 2016" by reinventing Bizet's masterpiece "Carmen" into a passionate and provocative work for the contemporary audience. Meet the new "Carmen", a perfect harmony of modern and powerful music, energetic dance, and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original characters.



# 영국 극단 1927 <골렘>

## "Golem" created by 1927

Lauded as one of the future faces of the theater by presenting works that integrate animation, film, and live performance, the British company "1927" is coming to Korea with its most recent hit, "Golem". This work was inspired by a novel of the same title written by Gustav Meyrink. It revolves around the intriguing story of the protagonist Robert, portraying how his tedious everyday life starts to change as he lays his hand on a clay puppet named Golem. The work questions "who controls what in the 21st-century techno society?" by uniquely and effectively setting up a poignant satire on the iPad generation through extraordinary animation images, live music, and superb acting.

### 영국 공연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보석 극단 1927의 놀라운 시각적 모험

**11.16—11.19**  
thu sun

weekdays 8pm  
sat 3pm & 7pm  
sun 3pm

R 80,000  
S 60,000  
A 40,000

공연 시간  
90분, 휴식 없음  
Duration  
90mins without an interval



회사에서 하루 종일 코딩일을 하는 주인공 로버트는 모태 솔로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하실에 모여 기타를 치는 게 삶의 유일한 낙이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점토 인형 '골렘'을 갖게 되면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다. 애니메이션과 라이브 퍼포먼스를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미래 연극의 모습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젊은 영국 단체 '1927'이 한국에 온다. 애니메이터, 작가, 피아니스트, 배우라는 특이한 조합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2007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최고 화제작인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로 페스티벌 5관왕에 오르며 화려한 데뷔식을 치른다. 두 번째 작품 <The Animals & Children took to the Streets>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데 이어 베를린 코미쉬 오페라와 함께 한 오페라 <마술피리>에서는 전통적인 오페라 무대 세트 대신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독특한 무대로 오페라 월드 어워드에서 '최우수 디자인상'을 거머쥐었다. <골렘(Golem)>은 '1927'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라이브 음악, 퍼포먼스가 정교하게 결합된 수작으로 2014년 초연 후 성황리에 전세계를 투어 중인 화제작이다. 구스타프 마이링크(Gustav Meyrink)의 동명소설 <골렘>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1927'의 작가 수잔 안드레이드(Suzanne Andrade)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쓰여졌다. 작품 속 주인공 로버트에게 골렘이 있다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골렘은 어쩌면 스마트폰이 아닐까.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과 라이브 퍼포먼스의 절묘한 조화를 통한 시각적 즐거움뿐 아니라 '테크놀로지 사회에서 누가 무엇을 조종하는가?'라고 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고 있다. 공연이 끝나고 공연장을 나서는 동시에 스마트폰을 켜는 당신,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

**"고전적 풍미와 현대적 감수성이 위트 있게 결합된 90분 동안의 이 공연은 아이패드 세대에 일침을 가한다."**

**"A witty collision of knowingly antiquated aesthetics, wide-ranging cultural influences and modern-day sensibilities, the 90-minute show takes a direct satirical swipe at the iPad generation....."**

- The Daily Telegraph

영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English with Korean subtitles.



## 크로노스 콰르텟 "검은 천사들"

### Kronos Quartet "Black Angels"

Dedicated to the sole vision of expanding the potentials of a string quartet, America's Kronos Quartet is recognized as the most adventurous contemporary music ensemble today. This will be the ensemble's first visit to Korea since its last performance in 2007. In 1973, the current 1st violinist David Harrington founded Kronos Quartet, inspired by George Crumb's "Black Angels", a work that deals with the brutality of the Vietnam War. The quartet has strived to escape the stereotypes and fixed forms of string quartet by carrying out bold experiments. Having introduced over 850 new works to date, the Kronos firmly established its position as one of the greatest string quartets of our times. In their November concert, the Kronos will perform their iconic scores, including Crumb's "Black Angels" and Steve Reich's masterpiece "Different Trains" first performed by themselves in 1988.

11.21  
tue

8pm R 80,000  
S 60,000  
A 40,000

데이비드 해링턴(David Harrington, Vn)  
존 셔바(John Sherba, Vn)  
헝크 더트(Hank Dutt, Va)  
양정인(Sunny Yang, Vc)

현악4중주의 잠재력을 확장시킨다는 단 한가지 비전을 위해 지난 44년간 헌신해온 우리 시대 가장 도전적인 현대음악 앙상블인 미국의 '크로노스 콰르텟(Kronos Quartet)'. 2007년 미항공우주국(NASA)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Sun Rings>로 LG아트센터 무대에 섰던 그들이 10년 만에 내한한다. 크로노스 콰르텟은 지금까지 제1바이올리니스트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해링턴(David Harrington)이 베트남 전쟁의 참혹상과 무의미함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조지 크럼(George Crumb, 1929-)의 "검은 천사들(Black Angels)"에 감명받아 1973년 창단하였다. 이후 크로노스는 현악4중주에 대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과감한 실험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인간을 위한 음악, 시대정신이 숨쉬는 음악을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왔다. 지금까지 크로노스는 무려 850편이 넘는 음악을 초연하며 현악4중주의 새로운 형식, 새로운 내용을 꾸준히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아담스, 구레츠키, 라이히, 패르트, 피아졸라 등의 현대음악 거장은 물론, 오넷 콜맨 등의 재즈 전설, 지미 핸드릭스나 시규어 로스와 같은 록 스타, 우 만이나 아샤 보슬레와 같은 월드 뮤지션과의 협업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어 왔다. 이번 내한에서 크로노스 콰르텟은 자신들의 처음으로 돌아가 "검은 천사들"과 함께, 자신들이 초연하고 1989년 그래미상을 수상한 스티브 라이히(Steve Reich)의 대표작 "Different Trains"를 선보인다. 단순히 네 대의 현악기가 아닌 효과적인 조명 아래 연주자의 고함과 읊조리는 목소리마저 선율이 되어 현악4중주와 협연하는 "Different Trains"를 통해 오늘날 많은 현대음악 연주자들에게 이정표가 된 크로노스의 혁신적인 비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현악4중주단의 하나"  
"One of the greatest string quartets of our times"

- The Gramophone

**Program**

조지 크럼 "검은 천사들", 스티브 라이히 "Different Trains" 등  
George Crumb "Black Angels", Steve Reich "Different Trains" etc.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토니오 산체스와 마이그레이션

## Antonio Sanchez and Migration

The five-time Grammy-winning drummer Antonio Sanchez will return to Korea with his band the "Migration". In 2002 and 2005, he performed at the LG Arts Center as the drummer of the Pat Metheny Group. He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drummers in the contemporary jazz scene today actively performing as both a solo musician and a band leader. In "Birdman" which won the Best Picture Award at the 2015 Oscar's, he proved his full-scale musical caliber by creating an original score that propelled the film forward with a strong rhythmic sense. This time, his performance will begin with a workshop solo performance named the "The Birdman Experience", where he will explain and perform the scores of the film, and end with a full evening concert with his band.

11.25  
sat

7pm R 80,000  
S 60,000  
A 40,000

+

**버드맨  
드럼 세션  
The Birdman  
Experience**

안토니오 산체스가 영화 <버드맨>의 작곡 및 작업 과정, 스코어 등을 직접 설명하면서 연주를 들려주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2pm  
All Seats 30,000

### 관객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천부적인 리듬감

팻 메시니 그룹의 드러머에서 영화 <버드맨>의 작곡가까지, 만개한 음악적 역량을 선보이며 현존하는 가장 탁월한 재즈 드러머로 평가 받는 안토니오 산체스가 두 편의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안토니오 산체스는 전설적인 트럼피터 디지 길레스피 오케스트라와 다닐로 페레즈 어쿠스틱 트리오를 거쳐, 세계적 기타리스트 팻 메시니 그룹의 드러머로 합류하며 명성을 얻었다. 그는 팻 메시니 그룹의 일원으로 8개의 앨범을 녹음하고, 그 중 3개의 앨범으로 그래미상을 받았다. 칩 코리아, 조슈아 레드먼, 찰리 헤이든, 다이안 리브스 등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들과 협업하며 한창 주가를 높이던 그는 2007년 첫 번째 솔로 앨범 <Migration>으로 "최고의 데뷔 앨범"(All About Jazz)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작곡가와 밴드 리더로서도 주목 받기 시작한다. 이후 시무스 블레이크(Seamus Blake, 색소폰), 타나 알렉사(Thana Alexa, 보컬), 존 에스크릿(John Escreet, 피아노), 맷 브루어(Matt Brewer, 베이스) 등 쟁쟁한 연주자들로 구성된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밴드를 결성하여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2015년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버드맨>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된다. 시종일관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그의 드럼 연주는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듬감을 선보였으며 관객과 평단의 극찬 속에 그래미상 '최우수 사운드트랙상'의 영예도 얻게 된다. 이번 공연은 음악적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안토니오 산체스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산체스는 자신의 밴드 '마이그레이션'과 최근 앨범 <The Meridian Suite>를 중심으로 다채롭고 폭넓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선사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연주 영화 <버드맨>의 작곡 및 작업 과정과 스코어 등을 직접 설명하면서 연주를 들려주는 '버드맨 드럼 세션'을 선보인다.

#### Line Up

안토니오 산체스(Antonio Sanchez, Drums)  
시무스 블레이크(Seamus Blake, Saxophone)  
타나 알렉사(Thana Alexa, Vocals)  
존 에스크릿(John Escreet, Piano)  
맷 브루어(Matt Brewer, Bass)

"안토니오 산체스는 오늘날 가장 존경 받는 드러머다. 그는 장르를 초월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연주자들과도 함께 연주할 수 있다."

"Antonio Sanchez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drummers working today. Sanchez transcends genre with the ability to literally play and adapt to any situation with virtually any ensemble."

- Critical Jazz



© Bégar Adams Mendoza

아티스트와 관객이 만나는 LG아트센터의 '관객참여프로그램'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 LAMP LG Arts Center Meets People

LG아트센터는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의 예술 세계와 창의력을 관객과 공유하는 관객참여프로그램 LAMP(LG Arts Center Meets Peopl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G아트센터가 엄선한 기획공연 CoMPAS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LAMP는 아티스트의 창작 과정을 공유하거나, 직접 체험해보는 워크숍 그리고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LAMP는 관객 여러분께 예술과 예술가를 통한 다양한 자극과 경험의 시간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샤우베크 베를린 <민중의 적> 관객과의 대화, 2016



서재형 연출 <더 코러스> 오이디푸스> '오슬랜드 아트 페스티벌' 초청 기념 오픈 리허설, 2016



로사스와 함께 '로사스 댄스 로사스'를, 2015



안무가 '린 화이민'을 만나다, 2015

## CoMPAS17 Discount Information

Discount for Small Gatherings,  
Great Discounts to Be Had!

### GET-TOGETHER Discount

Tue, 17 Jan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A 25% discount for a group of 4 or more people who purchase R or S seats for the following programs: "The Fountainhead", "La Verità", "Atomos", "Carmen" and "Golem"

It's Wonderful to Be Young!

### YOUTH Discount

Tue, 17 Jan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Discounted tickets available for those born after 1 January 1990.
- 30% off for A and B seats / 20% off for VIP, R and S seats
- Receive a discount of 20% for "The Birdman Experience"
- Please bring your identification card with you when collecting your ticket(If not, you will be charged for the difference on site.)

- \* One discounted ticket applies to one performance only. Discounts may not be applied more than once or in a retroactive manner. The discounts are only for LG Arts Center CoMPAS17 programs.

Reserve Early and Save Money!

### EARLY BIRD Discount

Tue, 17 Jan ~ Fri, 17 Feb

- Receive a discount of 15% on each performance, available until 17 February 2017.

Special Choice of Shinhan card

### SHINHAN CARD Great Art Collections Discount

Tue, 17 Jan ~ Fri, 17 Feb

Get a 20% discount for 'Great Art Collections' programs by paying with the Shinhan card. First 200 seats per program can be bought until 17 February.

- \* The Great Art Collections: The Chick Corea Electric Band, "Sweet Mambo", "The Fountainhead", "La Verità", "L'Appartement", "Carmen", "Golem" and Antonio Sanchez and Migration  
A 20% Discount for "L'Appartement" will be applied when its tickets go on sale later.

Special Choice of Shinhan card

### SHINHAN CARD Discount

Tue, 17 Jan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Get a 10% discount for every program by paying with the Shinhan card

# CoMPAS17 Program Packages

Ticket sales for packaged programs will begin **at 9am on Tue, 10 Jan**

**For inquiries on package purchases, please contact us by**

- www.lgart.com/eng
- Box Office: Weekdays 9am-6pm (Closed on weekends and national holidays)
- Tel: +82(2) 2005-0114
- E-mail: arts2005@lgart.com

## Package Benefits

- Package purchasers will receive a special package card.
- Package purchasers will get 10% savings on any menu at the café in the main lobby by simply showing the package card.
- Package purchasers can get individual tickets at a 20% discount for up to two guests that accompany them to each individual program of the package.
- **"L'Appartement" directed by KOH Sun Woong is not included in all packages.**
- **"The Birdman Experience" is included only in the Jazz Package.**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 Package tickets can be purchased by phone or by E-mail.
- The seats purchased must be of the same grade for all programs comprising the package.
- Cancellation and modification of the package are not accepted once the first performance of the package has been staged. However, you may change the performance dates provided that the subject tickets pertain to the same show.

## The Ultimate Package

**50% savings on all 13 programs:** Package sale begins from 9am to 6pm on Tuesday 10 January only

The seats purchased must be of the same grade for all programs presented under CoMPAS17. Four types of price packages are available based on the seat grades. You must select all 13 programs except "L'Appartement" and "The Birdman Experience". You may not select a certain program more than once to make up the 13 program package.

VIP* + R	1,270,000	→	635,000
R	1,180,000	→	590,000
S	890,000	→	445,000
A	600,000	→	300,000

\*VIP grades for "Sweet Mambo", "La Verità", Scottish Chamber Orchestra and "Carmen"

## The Free Choice Package

The seats purchased must be of the same grade for all CoMPAS17 programs selected. Four types of price packages are available based on the seat grades. You may not select a certain program more than once to make up the 10, 7 or 5 program package. "L'Appartement" and "The Birdman Experience" are not included in all packages.

**35% savings on 10 or more programs selected:** Package sale ends on Thursday 30 March

**25% savings on 7 or more programs selected:** Package sale ends on Thursday 25 May

**20% savings on 5 or more programs selected:** Package sale ends on Tuesday 30 May

\*VIP grades for "Sweet Mambo", "La Verità", Scottish Chamber Orchestra and "Carmen"

38

+

39

## The Doubles (Theatre & Dance) Package

**25% savings on all 6 theatre and dance programs below:** Package sale ends on Thursday 23 March

**"L'Appartement" directed by KOH Sun Woong is not included in all packages.**

24-27 March	Pina Bausch "Sweet Mambo"
31 March-2 April	Toneelgroep Amsterdam "The Fountainhead"
27-30 April	Compagnia Finzi Pasca "La Verità"
26-27 May	Company Wayne McGregor "Atomos"
9-12 November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Carmen"
16-19 November	"Golem" created by 1927

VIP* + R	580,000	→	435,000
R	520,000	→	390,000
S	400,000	→	300,000
A	280,000	→	210,000

\*VIP grades for "Sweet Mambo", "La Verità" and "Carmen"



아트서커스 <라 베리타>  
Compagnia Finzi Pasca "La Verità"  
4.27(Thu)-30(Sun)

## The Classical Music Package

**25% savings on all 5 classical music programs below:** Package sale ends on Monday 6 March

7 March	Isabelle Faust, Alexander Melnikov & Jean-Guihen Queyras
21 April	Pianist Gabriela Montero
29 May	Scottish Chamber Orchestra
31 May	The Tallis Scholars
21 November	Kronos Quartet "Black Angels"

VIP* + R	470,000	→	352,500
R	440,000	→	330,000
S	320,000	→	240,000
A	200,000	→	150,000

\*VIP grade for Scottish Chamber Orchestra

## The Jazz Package

**15% savings on all 3 jazz programs below:** Package sale ends on Tuesday 7 March

**"The Birdman Experience" is included only in the Jazz Package**

8 March	The Chick Corea Elektric Band
25 November	Antonio Sanchez and Migration "The Birdman Experience"

R	250,000	→	212,500
S	200,000	→	170,000
A	150,000	→	127,500

# LG아트센터 회원이 되면 좋은 점!

**1** 예매 수수료가 없다!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티켓 예매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2** 예매에서 취소, 좌석 변경까지 편리하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티켓의 예매/취소/변경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입비, 연회비 없고, 실속은 아트포인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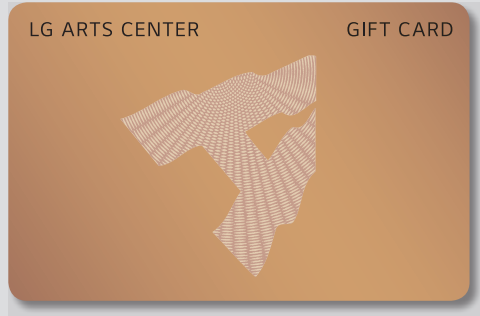
기획공연 티켓 예매 시 구매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아트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10% 초과 할인 구매 시 포인트 적립 불가) 아트포인트는 기획공연 티켓 할인 및 주차우대권 교환, 프로그램북 교환 등 원하는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고급 정보를 뉴스레터로!

LG아트센터가 전해드리는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보세요. 기획공연에서 만나게 될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심층 정보가 담긴 Azine(에이진)을 읽으시면, 관람의 깊이와 기쁨이 달라집니다.

# LG아트센터 기프트 카드

LG아트센터의 독창적인 예술 경험을 선물하세요!



종류: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오직 LG아트센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감동, LG아트센터 기획공연의 가치를 선물하세요.

## 사용 안내

- LG아트센터 홈페이지 인증을 거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 LG아트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매 시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및 타 예매처 사용 불가)

## 사용 방법

- 회원가입 후 기프트 카드 뒷면의 인증번호 인증 (최초 1회)
- 관람을 원하는 기획공연 선택 후, '예매권/쿠폰/상품권' 선택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 유효기간은 카드 뒷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구매 및 사용 문의

LG아트센터 대표소 02-2005-0114

# 제휴 레스토랑 할인 안내

LG아트센터 당일 입장권, 예매확인서 또는 CoMPAS17 패키지 카드를 소지하시고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단, 각 레스토랑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할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afé

### LG아트센터 로비 카페

\* 패키지 카드 제시 시, 10% 할인

### 아트제 역삼점

02-557-2155  
평일 7:00-23:00  
주말 9:00-22:00  
음료 10% 할인

\* 패키지 카드 할인 없음

## Buffet

### 머큐어 엠베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 뷔페 레스토랑)

02-2050-6034  
11:30-14:30

전 레스토랑(뷔페, 카페, 바) 10% 할인

## Asian

### 싱카이 (중식당)

02-2005-1003-4  
11:30-14:30 / 17:30-21:00  
식사 금액 10% 할인

### 강가 (인도식 커리)

02-2005-0610  
11:30-15:00 / 17:30-22:00  
세트메뉴 10% 할인  
(티켓 1매 당 1세트)

## Western

### 지아니스 나폴리

(이탈리안 비스트로 & 화덕 피자)  
02-566-0501  
11:30-22:30  
지아니스 시저 샐러드 제공  
\* 패키지 카드 제시 시, 10% 할인 (음료, 주류 제외)

### 보나베띠

(이탈리안 레스토랑 & 와인 바)  
02-569-8253  
11:30-23:00 (일요일 휴무)  
일주일 이내 입장권 또는 예매 확인서 소지 시  
평일 10%, 토요일 20% 할인

### 토마스하우스

(스테이크/샐러드/오물렛)  
02-553-7942  
09:00-23:00  
(토요일은 21시까지, 일요일 휴무)  
식사금액 10% 할인

